

<수능완성 고전소설 중요 작품 목록>

영역	작품	수록	수록 예정
고전 소설	하생기우전	○	
	이춘풍전	○	
	속영남자전		○
	토공전		X
	옥주호연		○

- 중요 작품 목록은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영역부터 중요도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고1, 2, 3 학력평가 및 역대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험생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평가원 문제는 배제하였습니다.
- 작품 목록에 포함된 작품들은 본 자료 수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2 EBS 수능완성'에서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김현중 수능국어'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년 고2 6월 - 하생기우전]

날이 밝아올 무렵 여인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 사람들을 해코지 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여인은 하생더러 빨리 나가 보라고 재촉했다. 마침내 이 별하기에 이르자 절구 한 편을 지어 읊으며 하생을 보냈다.

산유화 처음 지고 산새들 지저귀더니
봄소식 어느덧 어둠 속에 돌아오네
생사를 맡겨 은혜가 막중하니
어서 금척 들고 인간 세계로 나가세요

하생이 집을 나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새로 쓴 무덤만 하나 있었다.

[중략 줄거리] 하생은 큰 절 앞 노뚝돌에 금척을 놓아두었다. 얼마 뒤 하생은 소복을 입은 여인과 사내종 두 명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시중의 집으로 끌려간다. 시중을 만난

하생은 전날 밤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 준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많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에게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무덤에 이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면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는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까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어찌 제가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등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돌아볼 리 있겠는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든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즉시 몸이 아프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신광한,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 구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두 편의 삽입시 모두 주인공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자신이 '하생'과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고 생각하였군.
- ② '여인'은 '하생'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들려주었군.
- ③ '하생'에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시중'은 반신반의(半信半疑)했겠군.
- ④ '시중'은 무덤 속 '여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혼비백산(魂飛魄散)하였군.
- ⑤ '유모'에게서 전달받은 '하생'의 시를 읽은 후 '여인'은 식음전폐(食飲全廢)하고 있군.

3.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두 번의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련은 비현실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며, 두 번째 시련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겪게 된다. 그리고 시련의 발생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재와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여인의 집이 무덤이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 ② 하생의 첫 번째 시련은 혼인을 약속한 대상이 죽은 여인이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 ③ 하생이 여인에게서 받은 금척은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이다.
- ④ 시중이 집안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둘의 혼인을 반대하는 것이 두 번째 시련이다.
- ⑤ 시중의 집에서 하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은 두 번째 시련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고3 10월 - 하생기우전]

[앞부분의 줄거리] 하생은 재주가 뛰어났으나 벼슬을 못하고 울적한 날들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하생은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 남문 밖에 있는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다음 날 여인은 자신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귀신임을 밝히면서, 자기 대신 무덤에서 나가 금척(金尺)을 하마석(下馬石) 위에 놓아 달라고 부탁한다. 하생이 무덤에서 나와 시킨 대로 하자, 여인의 집 비복들이 하생을 무덤 도둑으로 의심하여 여인의 부모 앞에 끌고 간다. 하생은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고한다.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삽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사람들에게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시중은 하생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平原)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 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 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A]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다.

[B]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등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부모가 딸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병이 난 이유를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 남의 일인 양 소원하게 대할 수 없어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나치게 따지는 일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모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아라. 숨길 것이 무어 있겠느냐?”

여인은 비녀와 귀걸이를 빼고 일어나 절한 뒤 죄를 청하며 말했다.

(중략)

아버지 어머니시여 / 지금부터 이제 / 다복하시기를 바라신다면 / 자손을 편안하게 해 주세요. / 어찌 운명을 거역하시며 / 제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 기러기 화락하게 우는 / 해 뜨는 아침에 혼례를 올리고 싶어요. / 아리따운 처녀 혼기가 찼으니 / 길일을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 / 우리 둘 다시 만나는 게 / 저의 소원이고 저의 도리예요. / 백주(柏舟)* 시로 맹세하하니 / 다른 마음 품지 않으려 해요. / 이리 될 줄 알았다면 / 살아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 공강의 혼령 있으리니 / 그와 손잡고 함께 갈까 해요.

시중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실하지 않고 자애롭지 못해 너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구나! 지금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월하노인*이 붉은 실을 발에 묶어 이미 정해진 운명인 터이니 네 뜻대로 해야겠다.”

- 신광한, 「하생기우전」-

*백주(柏舟) : 위(衛)나라의 세자 공백이 죽은 후 그 아내 공강이 수절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표현한 노래.
 *월하노인(月下老人) :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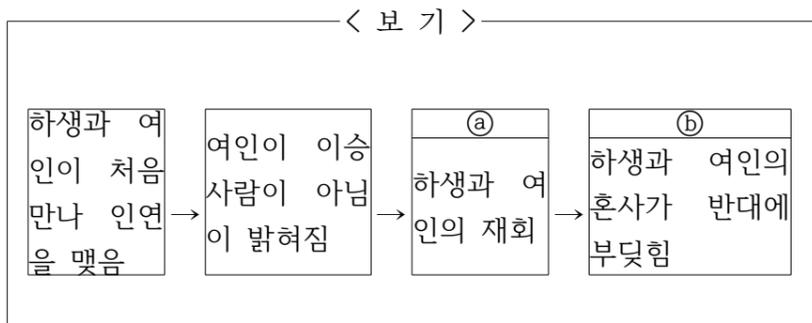
4.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시중은 딸이 환생한 후에도 하생의 사람됨을 의심하였다.
- ② 하생과 여인은 모두 무덤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③ 부인은 딸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④ 하생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 ⑤ 여인은 부모님의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믿고 있다.

6. [A]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부창부수(夫唱婦隨)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 ③ 언감생심(焉敢生心) ④ 전전긍긍(戰戰兢兢)
- ⑤ 천정배필(天定配匹)

5.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생은 여인의 부탁대로 행동하여 ①을 하게 되었군.
- ② ②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여인의 아버지 탓이로군.
- ③ 여인은 부모님을 설득하여 ②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군.
- ④ 두 사람이 ②를 겪게 될 것을 여인은 ①에서 이미 알고 있었군.
- ⑤ ②는 혼인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군.

7. [B]가 작품 속에서 하는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인공의 숨은 능력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처지와 심리 상태를 드러내 준다.
 ㄷ. 주인공이 미래에 겪어야 할 일을 미리 암시해 준다.
 ㄹ. 주인공이 겪는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년 수능특강 - 하생기우전]

[앞부분 줄거리] 하생은 재주가 뛰어났으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울적한 날들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하생은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 남문 밖에 있는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하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侍中)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네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하고 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선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뚝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여인은 하생더러 빨리 나가 보라고 재촉했다.

<중략>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너는 입으로는 시와 예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냐?”

하생은 웃으며 말했다.

“우선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제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하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 위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내 하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녀종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 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의심의 여지없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삽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封墳)*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사를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 질 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 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 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

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소원을 물었지만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잊은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그 종이를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A] 비록 흙탕물이 묻어도 옥은 더러워지지 않지만
 봉황은 자기 등지를 찾았으니 잡새를 돌아보려 하겠는가.
 팔 위의 눈물 자국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는 도리어 꿈속에서나 그대를 보겠구나.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 신광한, 「하생기우전」

*노릇돌: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봉분: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

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하생은 인간 세상이 아닌 곳에 있는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
- ② 여인은 하생이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서 겪을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
- ③ 시중은 하생의 말에 따르면서도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 ④ 시중의 공정한 처결로 인해 여인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
- ⑤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꿈으로 여기며 하생과의 인연을 기억하지 못했다.

9. 사건 전개를 고려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생이 자아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 ② 하생이 여인과의 추억을 회상하게 되는 소재이다.
- ③ 하생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④ 하생이 과거에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⑤ 하생을 여인의 부모와 연결하는 매개로 작용하는 소재이다.

10.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하생기우전」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 시대이지만, 작품에는 특이하게도 조선 시대의 남녀 결연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남녀 결연은 가문 간의 결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결연은 대체로 남성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 연애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결연 당사자의 자유 연애에 근거하여 결연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상 드물었다. 이는 결연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① ㉠: 시중이 남녀의 결연에 있어 가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② ㉡: 하생의 인간됨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중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 부인은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 아녀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지녔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하생은 자유연애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며, 다른 가문과의 결연을 수용해 버린 여인을 원망하고 있다.
- ⑤ ㉤: 하생과의 결연을 무산시키려 드는 부모에 대해 여인이 거역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11.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ㄱ. 여인과 자신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군.
 ㄴ.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군.
 ㄷ. 여인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ㄹ. 상황이 변해도 근본은 변치 않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고1 6월 - 이춘풍전]

[앞부분 줄거리]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이춘풍은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다 털리고 추월의 집 하인이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처는 남장을 하고 신임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간다. 평양에서 춘풍의 처는 추월을 문초하여 춘풍의 돈을 돌려주도록 한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린다.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갔, 망건, 의복 치레하여 은안준마(銀鞍駿馬)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아리 돈을 여기저기 벌여 놓고 장사에 남긴 것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만한 태도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되,

┌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A]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도 그릇 박고 고기도 씹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내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다 셈하고 약간 전량 소쇄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 하고 담뱃대를 한 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 왔느냐.”

춘풍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하여 여쭙오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댁 문하에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여이다.”

...(중략)...

춘풍이 어찌지 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 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춘풍이 왈,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일

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그 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비장이 왈,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드리거늘,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내외시키느냐. 네 계집 빨리 불러 술 준비 못 시킬소냐.”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들며 나며 찾아도 없어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제 형용도 참혹하고 거 [B] 지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 * 현 누더기 감발버선 어떨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막을손가. 좌불안석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왈,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가 술이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해갈(解渴)이나 하계 갈분(葛粉)이나 한 그릇 하여 오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오. 주적주적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

“몹쓸 놈이로다.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중찬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나가서 죽 쑤는 꼴은 차마 우습더라. 한참 항적여서 쑤어드리거늘, 비장이 조금 먹은 채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한 사발에 누룽밥 토장덩이에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춘풍이 받아 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왈,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과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은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 탕건 벗어 웃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며 자세히 보니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어 묵묵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으며,

“이 사람, 인제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러한가.”

하며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 미상, 「이춘풍전」-

*봉두난발 : 머리털이 속대강이같이 험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 깨어진 거울이 서로 맞대어 붙어.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순종적인 아내 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경제 활동을 소홀히 여겼던 당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탐관오리(貪官汚吏)가 판치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 ④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과 허위의식을 지닌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⑤ 사회적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몰락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건]	[내용]
사건 I	춘풍이 귀가하여 춘풍의 처에게 호기를 부림.
↓	
사건 II	비장이 춘풍을 찾아와 대화를 나눔.
↓	
사건 III	춘풍과 춘풍의 처가 대화를 나눔.

- ① ‘사건 I’에서 보인 춘풍의 태도가 ‘사건 II’를 야기하고 있군.
- ② ‘사건 II’에서 비장은 춘풍의 과거 행적을 춘풍의 처에게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사건 III’에서는 춘풍의 처가 꾸민 일이 종결되고 있군.
- ④ ‘사건 III’에서 춘풍은 춘풍의 처에게 ‘사건 I’에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군.
- ⑤ ‘사건 I → 사건 II’, ‘사건 II → 사건 III’으로 바뀔 때 ‘복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

14. ㉠, ㉡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①	불만을 드러낸 것	상대의 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
②	불안감이 표출된 것	만족감이 표출된 것
③	당혹감을 표출한 것	감정을 상반되게 표현한 것
④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	기대가 충족되어 나타난 것
⑤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

15. [B]를 고려할 때, [A]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를 한자 성어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호가호위(狐假虎威) ② 정저지와(井底之蛙)
-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④ 감탄고토(甘香苦吐)
-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년 시행 고3 3월 B형 - 이춘풍전]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재, 길쌈,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끊기로 수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A]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볼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깎기, 네 푼 받고 장옷 짓기, 닷 푼 받고 도포하기, 엿 푼 받고 천익* 짓기, 일곱 푼 받고 금침하기, 한 냙 받고 돌 씨누비, 두 냙 받고 바지누비, 세 냙 받고 긴옷 누비, 넉 냙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고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었다.

[가]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땡땡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냙을 대돈변*으로 얻어내어 박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낸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옵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냙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습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笞杖) 골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본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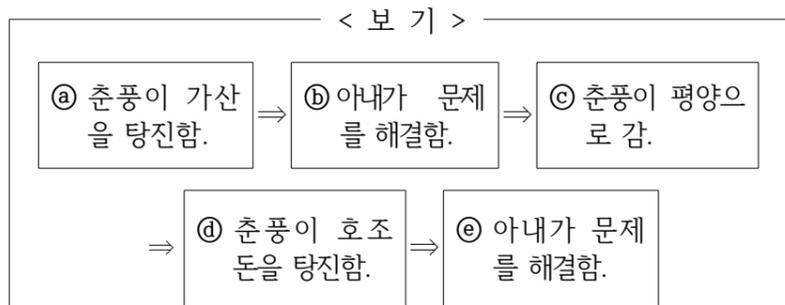
* 비부지자: 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천익: 무관의 공복. 철릭.

- * 대돈변: [돈 한냥에 대해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③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를 만류한 것은 ㉠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시행 고3 7월 - 이춘풍전]

비장이 처소에 돌아와서 수일 후에 사령 불러 분부하여,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이놈, 네 들으라! 내가 이춘풍이냐?”
 춘풍이 벌벌 떨며,
 “과연 그러하오이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 푼 환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고. 매우 쳐라.”
 분부하자 사령놈 매를 들어 이십여 도를 힘껏 때리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앴느냐?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기생 추월과 놀고 나니 일 푼도 남지 않고, 달리는 한 푼도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筴杖) 골라잡고,
 “일분도 사정없이 매우 쳐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重治)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 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몽둥이로 때리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도를 힘껏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비장이 이르되,
 “호조에 관자하여 너를 죽이려 하였오되, 네 죄를 뉘우치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그런고로 너를 살리나니 호조 돈을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바치라.”
 하니, 추월이 여쭙오되,
 “열흘 말미만 주시오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다짐 써 올리니,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풀어 놓고 춘풍 더러 이르되,
 “십 일 내에 오천 냥을 받아 가지고 경성으로 올라오라.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먼저 올라가니 내 뒤를 미쳐 올라와 집으로 찾아오라.”
 하니, 춘풍이 황황하여 아뢰되,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다 거두어 받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경성 가서 댁에 먼저 문안하오리이다.”
 하고 여쭙더라.

비장이 감사께 여쭙되,

“○추월에게 설욕하고 춘풍도 찾삽고 호조 돈도 거두어 받으니 은혜 감축 무지하온 중, 소인 몸이 외람되이 존중한 처소에 오래 있삽기 죄송하여 떠날 줄로 아뢰나이다.”

감사 그러히 여겨 허락하니, 이튿날 감사께 하직하고 상으로 받은 돈 오만 냥을 환전(換錢) 부쳐 놓고, 떠나서 여러 날 만에 집에 와 정돈하고 환전도 찾은 후 남북을 벗어 놓고 춘풍 오기 기다리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돈을 되찾은 춘풍은 경성으로 돌아와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하고 온 듯 아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데, 이에 아내는 다시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비장 가로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가서 술에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갈증이나 풀게 갈분(葛粉)이나 한 그릇 하여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오. 주저주저하매 비장이 꾸짖어 가로되,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알피왈(此曰彼曰)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내가 집에 왔다고 그리 지위가 높은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어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헌 사발에 누룽밥, 된장덩이를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어서 먹어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하여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 탕건 벗어 놓고 웃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연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천만 뜻밖에 제 아내라. 춘풍이 어이없어 묵묵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하며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뤘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

더라.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관자: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나 공증한 문서.

*자모지례: 1년 동안의 변리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화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외화에서 내화로 이동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월'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 ② '호조 돈'은 춘풍과 추월이 호되게 매를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감사'는 비장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 ④ '춘풍'은 평양에서 만난 비장이 아내인 것을 경성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다.
- ⑤ '비장'은 춘풍의 행동에 노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은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임병양란을 거치며 가장의 무능한 모습이 부각되어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부도덕하게 사는 남성들이 존재했는데, 「이춘풍전」에는 이런 남성들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남장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춘풍은 무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② 기생인 추월에게 호조 돈을 탕진한 춘풍은 부도덕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아내가 남장을 하고 비장으로 일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경성으로 돌아와서도 허세를 부리는 춘풍은 아직도 가장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춘풍이 겪는 어려움을 아내가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22. ㉠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근묵자흑(近墨者黑)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 ⑤ 일거양득(一舉兩得)